

오늘의 성가

입 당	136	예수 부활하셨도다	성 체	171 500	오 거룩한 생명의 샘 평화의 하느님
봉 헌	210 219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파견	130	예수 부활하셨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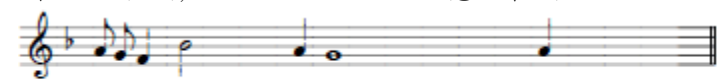
말씀의 초대 卍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교회마다 원로들을 임명하고, 단식하며 기도한 뒤에, 주님께 그들을 의탁하고 안티오키아로 간다(제 1 독서), 요한 사도는, 어좌에 앉으신 분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고 하시는 소리를 듣는다(제 2 독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다(복음).

제 1 독서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 주신 모든 일을 교회에 보고하였다.>
 卍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4,21 ㄴ-27
 그 무렵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으로 갔다가 이어서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고 계속 믿음에 충실하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교회마다 제자들을 위하여 원로들을 임명하고, 단식하며 기도한 뒤에,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의탁하였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피시디아를 가로질러 팜필리아에 다다라, 페르게에서 말씀을 전하고서 이탈리아로 내려갔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티오키아로 갔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선교 활동을 위하여 하느님의 은총에 맡겨졌었는데, 이제 그들이 그 일을 완수한 것이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 신자들을 불러,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 주신 모든 일과 또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45(144),8-9,10-11,12-13 ㄱ,ㄴ(◎ 1 참조)



후렴: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 저의 임금인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당신의 위엄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 사람들에게 알리나이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 ◎

제 2 독서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卍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21,1-5 ㄴ
 나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어좌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13,34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 알렐루야

복음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31-33 ㄱ,34-35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애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미사지향**

공동지향:

Our Lady of Mercy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지난 주 우리의 정성**

KCC 주일 헌금	\$1,720	OLM 주일 헌금	\$3,074	미사 참여자 수	207 명
KCC 이차 헌금	\$308	OLM 이차 헌금	\$1,035	감사 헌금	고소현 (\$3,000)
교무금 (\$1,670)	한철희(5-6) 정영철(5-6)	손영수(4-6) 박락준(5)	이대우(4-6) 김수길(5-6)	김삼식(5) 하건철(3-5)	김대호(5-6)

- 교무금, 개인 감사헌금,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차헌금
- Payable to *Our Lady of Mercy* 또는 *OLM* (월, 세대주 이름 및 본명을 꼭 기입해 주십시오)
- 교무금과 감사헌금은 봉헌함에 넣지 마시고 사무장에게 직접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체 소식

◆ 2차 헌금

• 오늘 주일(5/19) 미사 중 중남미, 동유럽 선교 사업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주님 승천 대축일 한국어 미사

- 일시: 5월 30일(목) 저녁 8시
- 장소: 성당

◆ 본당 야외미사 안내

- 일시: 6월 16일(일)
- 장소: Donaldson Park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 신자등록서 배부

• 신자등록서 양식은 각 구역장님들을 통해 배부되고, 성당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6월 30일까지 기한을 연장하였으니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 2019 Bishop's Annual Appeal

• 2019년 본당 할당금액은 \$35,000이며, 5월 3일까지 납부된 금액은 \$27,305.57 (목표금액의 78.02%)입니다.
• 체크로 납부하실 경우 Diocese of Metuchen - Bishop's Annual Appeal 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2019 OLM Church Parish Communion Breakfast

• 미국 신심단체 Rosary Altar Society 와 Holy Name Society 주관으로 진행되는 Communion Breakfast 행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6월 9일(주일) 9:00-11:00, 친교실
- 티켓 가격: \$17 (13세 이상 성인), \$8 (6-12세 아동)
- 티켓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프린스턴 한인성당 25주년기념 골프대회

- 일시: 6월 15일(토) 오전 10시 30분 (신청마감 6/1)
- 장소: Mercer Oaks Golf Course
- 참가비: \$120 (점심, 저녁식사 제공)
- 참가신청: 오용운(토마스아퀴나스) 행사분과장 또는 사무실

◆ 2019 San Alfonso's Men's Retreat

- 주제: "The Call to Holiness"
- 일시: 9월 6일 ~ 8일
- 장소: San Alfonso's Retreat House
(755 Ocean avenue Long Branch, NJ07740)
- 참가비: \$240
- 문의: Felix Reid (732-259-0979)
Keith Fasanella (732-356-5780)

◆ 화단 가꾸기에 봉사해주시는 유용희 율리아나, 박화성 헬레나, 이주민 헬레나, 이화자 마틸다, 유병기 베네딕도, 변태용 요셉, 신용철 다니엘님께 감사드립니다.

◆ H마트 상품권

• 성모회에서 H마트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 프란치스코, 장인석 미카엘, 최규학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오옥순 수산나, 정영옥 수산나, 최혜경 데레사, 최경삼 안나, 김경희 수산나, 오홍순 카타리나

◆ 최위숙(올리아나) 자매님의 뉴저지 한인 상록회 제 18 회 효행상(효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 소공동체 소식

◆ 구역장 월례회의

- 일시: 5 월 26 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회의실 1

◆ 요셉회 모임

- 일시: 5 월 25 일(토) 오후 6 시 30 분
- 장소: 친교실

◆ 구역모임

- 럿거스
 - 일시: 5 월 19 일(일) 오후 1 시
 - 장소: 최두철(요셉) 형제님택
- 먼로
 - 일시: 5 월 19 일(일) 오후 5 시
 - 장소: 배인호(스테파노) 형제님 택
- 우드브릿지, 피스카타웨이
 - 일시: 5 월 25 일(토) 저녁 7 시
 - 장소: 맵 어거스틴 형제님 택 (2 Orchard Rd. Piscataway)
- 메타천
 - 일시: 5 월 26 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회의실 2
- 이스트브런스윅
 - 일시: 5 월 26 일(일) 오후 5 시
 - 장소: 김동근 (사도요한) 형제님 택
(26 Hoagland Ct. Bridgewater, NJ 08807)
- 사우스브런스윅
 - 일시: 6 월 1 일(토) 저녁 7 시
 - 장소: 손영수 (유스티노) 형제님 택
(6 Violet st. Dayton NJ 08810)

복음 묵상 나눔 질문

◎ 복음 나눔

내 마음에 다가온 성경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복음 안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 주시는지를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나눕니다

✕ 요한 13,31-33 13,34-35 (부활 제 5 주일)

“유다가 나간 뒤에” (요한 13,31)

1.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영광을 이야기하십니다. 제자의 악한 행동과 함께 시작된 수난이 영광의 출발점이 됩니다. 세상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어떻게 다른지 나누어 봅시다.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요한 13,31)

2. 사람의 아들은 수난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수난받는 사람의 아들만이 영광 가득한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고통에 함께 동참하면서 역설적이지만 기쁨과 평화를 느꼈던 적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3. 우리'사랑의 출발점은 언제나 우리에게 대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됩니다. '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 나누어 봅시다.

✕ 요한 14,23 14-29 (부활 제 6 주일)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요한 14,23)

1.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계명을 잘 지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잘 지키고 있는 말씀이나 계명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지키고 있는 약속도 나누어 봅시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요한 14,27)

2. 일상에서 만난 고난과 역경 안에서 예수님의 평화를 느꼈던 적이 있나요?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 14,29)

3. 오늘 복음 말씀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유언을 들었던 경험이나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